



**손보원**  
(기획팀)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돈이 아닌 공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시민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한 봉사활동 단체를 운영하십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은 제가 개인적 영달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사회적, 공적 책임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언론사 입사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언론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사

준비를 하며 현대사회의 언론이 오히려 사회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잘못된 보도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결점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한다면 언론의 허위 보도나 사생활 침해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도움으로써 사회를 개선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언론이 스스로의 존재 목적인 공익성을 제대로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직원 교육을 통해 위원회의 각 팀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회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30여 년간 언론자유와 국민권익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성실한 태도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굵은일을 도맡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30년 후 '언론중재위원회'가 더 향상된 모습의 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한병훈**  
(연속교육팀)

"어떻게 경제학을 전공하고 우리 위원회를 지원했는가?" 입사 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진 청년으로서 경제학, 꿈,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라는 퍼즐조각을 맞춰나가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전공한 경제학에는 자중손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 실패에 기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 혹은 사회후생의 극대화 실패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잉여 구매력과 공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중손실의 개념은 품어야 할 꿈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래 저 또한 경제학도는 숫자만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개념을 공부하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경제학으로서의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경제학으로서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높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필요한 기존의 사법절차(공급)와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 수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수요가 충족되도록 힘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큰 뜻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신입직원으로서 한 발 한 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지용**  
(접수상담팀)

"너 그러다 언론중재위원회 간다." 언론사 인턴 시절, 선배에게 처음 들은 말입니다. 선배는 시민을 인터뷰할 땐 어느 언론사에서 나왔는지, 또 어느 리포트에 어떤 인터뷰로 나가는지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언론중재위원회란 그런 규칙을 어겼을 때 가는 곳이었죠. 흡사 "엄마 말 안 들으면 망태할아버지 찾아온다."라는 말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한 번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에 걸리지 않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년 뒤, 저는 진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피고가 아닌, 신입직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합격 소식을 받은 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실감이 안 나서, 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가 올라올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의 만남, 앞으로 제가 가꾸고 발전시켜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언론사는 수백수천 곳이지만, 언론 분쟁을 조정하는 곳은 언론중재위원회 한 곳뿐입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보도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또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말 잘 듣고 또 열심히 배우는 신입사원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소영**  
(기사심의팀)

신입직원으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입장 차이를 보이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이 영화에서는 한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의 당사자 혹은 목격자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진술을 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 여러 번 영화를 보았지만 여전히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진실은 하나라는 점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있는 다른 인물들은 왜 그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색 끝에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하나의 진실을 두고 개인의 상황과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레임'이라는 개념과도 연관됩니다. 개개인은 각각의 고유한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많이 쓰이며, 언론이 어떤 프레임에 따라 보도하는가는 개개인의 프레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프레임'에 갇혀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을 지키고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지난 교육 기간 동안 몸소 느꼈습니다. 행여나 저 스스로가 편협한 프레임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 나가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